

#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9  
Sep. 2022  
Vol.10 No.09

통권 97호

- 2022 피택훈련
- 세례·입교·성찬식
- 주안에라이프 개강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 든든한 ‘허리그룹’ 주안예교회 활기

■ 코람데오·EM·영커플

주안예교회의 기성세대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세대를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허리의 역할을 감당해낼 그룹으로는 EM, 영커플, 코람데오 한어청년부를 일컬을 수 있겠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각기 재능에 따라 맡은 사역을 빈틈없이 소화해 내는 이들 허리 그룹은 위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라나는 IC Kidz 부터 ICY 를 돌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1.5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들 그룹의 헌신이 있기에 주안예교회의 미래는 기다림으로 다가온다.

사진은 위로부터 코람데오의 찬양, EM그룹의 선교비 지원 짜장 판매, 그리고 영커플 전체목장 모임.

(관계기사: 6, 7, 9 면) 오희경 기자 |



■ 2022 피택훈련

##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들 섬김과 봉사훈련



2022년 피택장로, 피택안수집사, 피택 권사 훈련이 9월 20일 오전 7시에 101호실에서 시작되었다.

내년에 임직식을 하기 전까지 담임목사와 함께 훈련을 통해 교회의 중직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훈련과 매일 새벽예배에 참여하여 성경을 읽고 또한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며 봉사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피나는 교육과 훈련을 거친 피택장로들은 교회에서 관노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리더가 되기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 공태용 피택장로 |

■ 주안에라이프 개강

## 보람있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2년 반만에 재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2020년 2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주안에라이프가 10월 19일 오전 8시에 개강합니다. 종전보다 더 매력적인 강의와 밸리 최고 수준의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여 성도님들과 이웃 주민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의 훌륭한 강사님들과 주안에교회의 장금이들이 총출동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안에라이프를 최고로 섬기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문의: 이미란 전도사(818-640-1887)

(사진: 2020년 자료사진)

| 공태용 피택장로 |

박익준, 구윤혜 집사 부부 베이비 샤워

9월 17일, 사랑하는 익준, 윤혜 집사 가정을 위한 베이비 샤워파티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소속되어 있는 영커플 2목장이 주관하여 준비될 예정이었는데, 두 분을 사랑하는 영커플 전체 목원과 두 분이 섬기는 코람데오 청년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풍성한 만남이 예고 되었습니다. 2번의 준비 미팅으로 데코팀, 게임 준비팀, 음식 및 디저트 준비팀 그리고 영상팀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사하기 위한 섬김이 준비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준비한 섬세한 기획과 그 결과는 두 분에게 감동과 귀한 가정을 향해 축복하려는 성도가 모여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박익준, 윤혜 집사 가정에 주신 새생명을 축복하고, 순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 김현경 집사 |

■ 교우동정



## 밸리-OC 연합 주일예배 맞춰 성찬·세례식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지난 9월 4일 주일예배 시간에 있었다. 때마침 OC채플과 함께 첫 주일예배를 드리는 날에 맞춰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주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연합된 예배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겼다. 세례식에는 구하린(구조섭-빛나리) 배예진(배경진-유진) 송루하(송서현-김민재) 김재영(김대니얼-테레사탕) 정하원, 정예원(정조섭-그레이스) 유아세례 6명, 사무엘 문(입교), 윤상숙, 에릭 이, 이제인, 김시현, 테레사탕(세례) 5명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우들의 축하를 받았다.



## 협동장로 네분 시무장로로 공동의회 임직투표 통과

지난 8월 21일 신임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임직투표에 이어 지난 9월 25일 주일예배 후 오랜 기간 교회의 봉사 사역을 감당하시던 네분의 협동장로를 시무장로로 세우는 임직투표가 있었다.

주안예교회 헌법과 내규 제2장 (협동장로에서 시무장로 임직)과 제5장 (교회조직)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 후보자 4명 (김영기 배석원 배진호 이인범 협동장로)이 등록성도들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시무장로로 피택되었다. 이들은 조만간 임직식을 거쳐 시무장로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 ■ 교우동정



### 현다니엘, 혜진 성도 결혼

"좋은 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결혼식~~♪" 9월 17일, 그로브물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아침부터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영커플 3목장 지체들로, 같은 목장의 현다니엘, 혜진의 결혼식에서 부를 축가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결혼식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온 하객들로 가득했고, 다양한 인종의 하객들을 배려해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결혼식 내내 신랑신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피로연까지 성대하게 마쳤다.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 주안예교회에 등록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 김윤영 집사 |

■ 새가족 소개

3년전 첫 설교말씀 아직도 생생

안녕하세요, 주안예교회에 등록한 지 한 달 남짓 된 김지연 집사입니다.



김지연 집사

처음 주안예교회 예배에 참석한 건 팬데믹 시작 전 2019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뽀리에 시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살고 계셨고 미국 교포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매년 시택에 방문하던 중, 가톨릭 신자이신 어머니가 노환으로 자주 성당에 못 나가게 되자 그 동안 미국 방문 때마다 눈여겨보던 주안예교회에 혼자 슬쩍 나오게 된 것이 이후 몇 년이 흘러 한 달 전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 바로 등록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까지도 제가 어느 한 부분을 기억할 정도로 제 마음을 움직였고 한 달 간의 방문기간 동안 주일예배를 모두 참석하게 되어 훗날 이 교회로 꼭 오리라 마음을 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등록한 첫 날부터 새가족부에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 구분 없이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시간 동안 혼자 집에서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위해 추가로 김밥을 더 챙겨주셔서 남편과 맛있게 나누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또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줌 모임에서도 지루하지 않도록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제 아들도 옆에 와서 함께 퀴즈를 풀려고 기웃거릴 정도로 정말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최혁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삶을 점검하게 되었고, 어느 한 주 어느 설교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 것이 여기 미국 땅에 오자마자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들이 등록한 첫 날부터 새가족부에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 구분 없이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시간 동안 혼자 집에서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위해 추가로 김밥을 더 챙겨주셔서 남편과 맛있게 나누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또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줌 모임에서도 지루하지 않도록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제 아들도 옆에 와서 함께 퀴즈를 풀려고 기웃거릴 정도로 정말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최혁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삶을 점검하게 되었고, 어느 한 주 어느 설교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 것이 여기 미국 땅에 오자마자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나의 옛사람이 매일 죽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내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하신 목사님 말씀으로 그 주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의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목사님 전하신 말씀 떠올리며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도록 시도해 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큰소리가 날 뻔한 상황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물론 때마다 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기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아직도 어렵지만 한 성경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의 주신 말씀을 꼭 내 삶에 실천하도록, 또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온 힘을 다해 설교해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있는 저는 정말 행운아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안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세례 소감

'윤상숙' 호명 순간 십자가 빛이...

50년의 불자 생활을 접고 첫발을 내딛은 주안예교회의 모든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첫번째 가장 불편했던 단어 “아멘,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불신감이 스멀스멀... 아멘의 뜻이,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임을 알게된 후부터 나도 자연스럽게 ‘아멘’을 외친다.



윤상숙 성도

두번째 불편했던 단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기를 여러 날, 성경을 읽으며, 나의 아버지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2022년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할때, 와! 이 설교는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라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신나 했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칠절기를 하시겠다는 목사님, 유월절 설교가 시작 하던 날 그 날 이후 나는 본당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십자가에서 활활 타는 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눈동자는 ‘내 죄를 알고 있다’ 나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기를 몇 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을 하던 날부터 나는 울기 시작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회개가 시작되었다. 잠자리에서도, 꿈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회개의 날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지난던 주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결눈질로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하트가 내 안으로 들어옴을 체험 하던날, 그 날 이후 나는 찬양시간이 너무 좋다. 다윗왕이 언약궤 앞에서 예뻐만 입고 춤 추었던 그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이 아닐까 한다.

나에게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온 정성 다해 설교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는 ‘최혁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3주 간에 걸친 세례 문답시간, 특히 장로님들 앞에서 즉문즉답을 하지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에 얼마나 떨었는가...

2022년 9월 4일 세례자, 윤상숙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본당 십자가에서 따뜻한 빛이 내 몸을 감싸며 ‘너는 내 딸이라, 사랑한다, 오래 기다렸다’ 속삭여 주신다. 아직도 죄 많은 유아기의 신앙인이며 비록 내가 우상숭배를 하였을 망정, 그 순간에도 지켜주고 계셨음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혁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여하시는 사랑을, 저로 하여금 흘러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 교육부 전도사 부임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등부를 맡게 된 오제니퍼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ICY를 섬기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 ICY로 부서를 바꾸게 되면서 마음가짐이 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ICY를 맡았을 때에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긴장하고,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평강과 희락, 담대함과 자신감을 넣어 주셨습니다.



오제니퍼 전도사

이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혼자 아닌, 교회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서포트하며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CY 아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다’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의 서포트와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물론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중, 고등학생들 뿐만 아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실 때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격려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 '말씀 전하는 자'



김민재 전도사

2019년에 첫아이를 임신하면서 약 2년 동안 쉼을 가지고 이번 2022년에 다시 IC KIDZ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딸이 어리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나만의 희생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수고해 주고 희생해줘야 하는 일하기에 선뜻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영원히 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선포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사역지로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사역지로 주시는데 저한테는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란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물론 육아라는 변수가 항상 있지만, 사역이란 것이 내 바람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뼈저리게 느꼈지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달리자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 이런 직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나중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 김선희 기사를 그리워하며...

몇 개 월전 사역국 박람회 가 있던 날 교인들의 발걸음이 뜰하던 사역국인 문서국에, 기자로 섬기기를 결심하고 흔쾌히 서명을 해 주시던 한 분이 있었다.

연세가 지긋해 보이셔도 단아하고 고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권사님은 첫번째 회의부터, 숨길 수 없는 신문에 대한 열정과 끼를 발산하셨으며 한편으로는 문서국의 기자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고 섬기심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시곤 했다.

매달 편집을 하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간식이나 점심을 정갈하게 담아오셔서 방해가 될까봐 사뿐사뿐 걸으시며,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인 ‘음악 산책’을 살짝 엿보시던 소녀 같으셨던 김선희 권사님...

“난 기자라는 사역이 너무 좋아!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열심히 할거야, 이 나이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지”

때로는 고충도 있으셨겠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려 우리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마우신 권사님...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떠나셨지만 하늘에 준비된 상급이 클 거라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본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벨리채플의 토요일 오후 편집을 하다 출출함이 느껴질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발자욱 소리가 그리움으로 남는다.

김선희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 오희경 기자 |

■ Camping at the Park(s)

## Camping Fun & Games: So Close to Home?

Camping At The Parks was a unique and blessed experience that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is year's Labor Day weekend.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event, I had thought we were going camping at a legit campsite in a national, or recreational park. Instead, it was something far greater than that. It was camping in the backyard of the Parks (Tom, and Laura's house).

The event surprisingly delivered a great, exciting time of fellowship for EM members. The day overflowed with activities such as games, dancing, eating delicious foods, and overnight camping.

The EM group was split into two teams, and each team had to come up with their team name and chant. All the games involved water balloons, and many people's clothes were soaked from participating. Each team was supportive and cheering for their teammates. It was



beautiful to see our EM group working together and having a great time. After the final round, both teams were at a draw. It was then decided that the final round was going to be a dance battle between the two teams. Both teams had to come up with a choreographed dance that would be judged by Josh Park, who then would decide the winning team. Both teams performed amazingly! It was a close competition. Team One ended up taking the win but, no hard feelings. Staying the night became optional instead of punishment for losing. We all went back inside to eat and hangout the

rest of the night.

Reflecting back to this event I am truly grateful to have been a part of it. It is in moments like this that I am reminded of the amazing people God surrounds me with in my life. It doesn't matter where we go. It doesn't matter what we do, and it doesn't matter what we eat. All that matters is being together in the presence of God. It was a blessing that this event had brought us closer together, and for us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 I can only imagine what Our Lord has planned for us when He returns. Praise our Lord Jesus Christ! | Eumene Kim |

■ 한글학교 소식

## 고사리 손으로 '다식 만들기' 추석맞이 체험학습

새 학기를 맞이한 주안에 한글학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의 풍성한 한가위 체험을 위해 "전통다식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다식"을 만들기 위해 직접 한국에서 다식틀을 공수하고 더 좋은 재료를 위해 고심하며, 한글학교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들의 손길을 더하여 귀하고 소중한 문화 체험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아이들의 손끝부터 야물고 다부진 언니 오빠들의 손길까지 저마다 해맑은 미소가득 수다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 속 한국의 역사와 지혜를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에 한글학교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인의 자긍심과 역사를 이해하는 믿음의 한인 2세들로 바르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 이현영 집사 |



■ Fundraising for Missionaries

## Once Again! EM's Loving Support to Missions



I recently had the chance to help fundraise for the missionaries that we support in different countries by selling jjajang to church members. Saturday morning, as I walked into the church gym near the kitchen, cutting boards and sharpened knives were lined up in two rows, ready to be the base for all the slicing, dicing, and chopping of onions, potatoes, and squash for cooking jjajang.

The volunteers were lined up and facing each other to prep the vegetables, as if we were part of a cooking competition. Although it seemed like mountains of vegetables, it really showed what strength in numbers could do for a village. The prep did not take too long, and thankfully, others came earlier to have all the onions and potatoes peeled and ready for us. We sliced, diced, and chopped, and maybe even shed a few tears, thanks to the wonderful lachrymators in the onions. This opportunity to serve introduced me to new faces and bonding time with each other in the house of the Lord.

I have only been a part of ICCC EM for several months, and I knew that stepping foot into a new environment would be intimidating and a challenge. Fortunately, all the leaders and members that I met have been very open and inviting for me to be a part of this community and made it easier for me to find my place here. Knowing that, I have been trying to make more time for God, and this jjajang fundraiser felt like a great opportunity.

As we waited for Pastor Kim to cook the jjajang so that we could pour them into the 16 oz. containers, I had the chance to talk to other EM members and get to know them better. I also really appreciated all the hard work that Pastor Kim and the other volunteers poured out in the hot kitchen, from prepping the ingredients, to cooking, washing dishes, and even cleaning up afterwards.

Being a part of this community has really opened up my eyes to show me and teach me that there are so man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orking for Him and through Him to help others. Seeing EM members gather and volunteer half of their Saturday to work for the Lord and His purposes is another reminder for myself all the good that God works through us, and why He wants us to work together for Him. We were able to raise over \$1,600, and I hope that the offering can help our missionaries who are working day and night to spread God's word and love. I look forward to growing through more opportunities like this in the future, and thank you to everyone who helped prep, cook, and sell the jjajang! | Su Jin Chang |

■ 유아세례 부모 소감

전능하신 하나님께  
루하의 길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우리 루하가 이번에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루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고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진정한 유아세례의 의미를 제 마음판에 되새겼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바라면서 받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키우겠다는 그 다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분명히 저는 이 다짐을 순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또 루하는 루하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루하와의 첫 만남부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시작임을 믿고 루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훗날에는 다 큰 루하와 함께 앉아 도란도란 각자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울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 송서현 성도 · 김민재 전도사 |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길...

유아세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딸 예진이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아세례 받은 예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가슴 깊이 평생 사랑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성장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 딸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드리는 딸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이 넘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저희 부부가 경험하고 만나고 삶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 성장하며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배경진 성도 · 배유진 전도사 |

삶의 참 주인되시는 하나님 신뢰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세 번째 아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어린아이를 대신하여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세례식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성도님들의 축복 찬양에 감사드리며 나눠주신 복을 아이가 이 땅에서 귀히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구조셉 · 구빛나리 집사 |





■ 코람데오 수련회

## 수련회에서 받은 감동, QT·기도의 불꽃

9월 5일~7일 나성산 기도원에서 코람데오 한어 청년부의 수련회가 개최됐다.

청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위한 정성과 도움의 결단들까지 더해져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으로 다같이 맞춰 입은 티셔츠는 4년만에 떠나는 수련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수련회 중인 9월 6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와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OC 채플의 성도들과 함께 벨리채플에서 드리는 첫 예배를 축하하고 싶은 청년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코람데오 청년들은 수련회 이후로도 매일 큐티를 목장에서 나누고, 매주 토요일마다 경건의 훈련과 기도회로 모이며 받은 감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니이다 (시편 119:9)'

수련회를 통해 한 뼉 더 성장한 코람데오 청년들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

씀을 실천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며, 주안에교회의 믿음직한 기동으로 하루하루 성숙해가고 있다.

| 황성남 기자 |

■ 영커플 전체모임

## 3개 목장 대가족 한마음 한뜻으로 '화끈'

9월 25일, 주일예배 후 영커플 3개 목장이 영커플 국장님 집에서 다같이 모임을 하였습니다. 평소 목장별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장들과는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니 영커플이 대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맞서듯 모임에 도움을 주셨던 집사님들과 목장에서 준비한 음식, 게임 등 열정이 더해지는 화끈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가 온종일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영커플 대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커플이라는 그룹이 삶의 큰 변화 가운데 있는 시기이고 청년 시절 주를 섬기는 열정이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많이 식어가며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가정은 주안에 교회 영커플 안에서 양국장님 내외를 비롯해 목자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목원들과 함

께 주일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안에교회 아가페 영커플이 말씀 안에 더 단단해 지고, 이 곳에서 성장하며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영성의 뿌리 깊은 영커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 장주성 집사 |

■ 교도소 사역 '주안에 Hope' 을 앞두고

##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2010년 6월의 어느 토요일, 교도소에 있는 한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서두르며 잠자고 있던 고등학생인 아들을 깨웠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없었던 그 당시엔, 아침 7시 전에 도착해야 겨우 순서대로 면회 번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LA에서 네 시간 거리, 남동쪽에 위치한 칼리파트리아, 그날따라 폭풍 쪼는 거의 115도 가까운 날씨였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겨우 7시 전에 도착해서 이미 줄 서있는 차들의 뒤로 차를 세웠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번호를 받고, 교도소 안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 깬 아들이 면회 시 입을 수 없는 청바지를 입고 온 줄도 모르고... 10시가 다 되어서 저는 “엄마가 3시 전에 나올게 자고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긴장된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시간이 끝나고, 밖에서 발갈게 익은 얼굴로 아들은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려고 차에 타자마자, 아들은, “A miracle happened.”(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10분 이상 뜨거운 차 안에 앉아있기도 힘든 날씨인데, 갑자기 3시간이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잠잘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걸까?”라고 묻자, 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딛은 발걸음과 잠을 설치며 엄마와 동행해 준 아들의 마음이 기록해서, 그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된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육신이 갇힌 채로 지내는 여러 형제들을 만나며, 다양한 사건들과 그 속에 얽힌 사연들, 억울함과 많은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드러난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갖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들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모두 종신형의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닐

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내 죄의 무게가 그 친구들의 죄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역... 세상의 관점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육신이 갇혀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선교는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권리 없이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육신이 갇힌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의 바닥을 경험했고, 이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20년 전에 같은 곳에서 만났던 세 형제들, 20년 후에 아직도 육신은 갇혀있지만,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삶은, 서로가 서로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고, 감사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고,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정의해버린 죄인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역이라면, 우리들의 어깨 위에 지워진 짐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진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비록 아무런 공로 없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음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조명희 집사 |



###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이광영, 이성은, 이에스더, 조은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 ■ 실내플랜트 기르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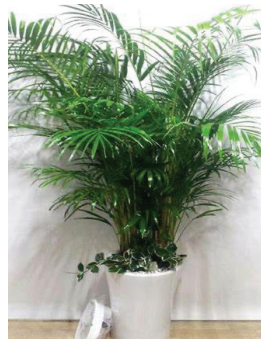
### 음이온 방출로 건강증진 · 숙면 효과까지

소개하는 공기 정화 실내식물은 ‘아레카 야자’ 와 ‘산세베리아’ 2종류인데 미국 NASA가 추천한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가 많은 식물 50종류 중 아레카야자는 1위, 산세베리아는 27위이지만 많이 기르고 인기 있는 식물 톱10에 포함된다. 또한 둘 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 진정, 신진대사 촉진, 혈액 정화 활동을 돕는 ‘음 이온’을 공기 중에 다량 방출하여 실내에서 기르면 우리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식물이다.

모든 식물을 관리할 때 부담감 보다 관심을 가지고 1~2개월 돌보면 애정도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식물을 키우는 일이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 A. 아레카 야자 (Areca palm)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등 유해 독소 제거 작용 5피트 크기의 나무가 24시간에 1리터 정도의 수분을 증발 시키는 자연 가습기 역할. 아름다운 나무 형태가 실내 분위기를 향상에 도움. \* 위치: 실내의 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물이 잘 빠지는 화분에 심는다. \* 물주기: 화분 표면의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데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준다.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바로 버려야 하는데 아니면 화분 밑에 자갈을 깔아 물이 뿌리에 닿지 않게 해준다.



아레카 야자는 습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2~3일에 한 번씩 분무기로 잎에 물을 스프레이 해주면 잎이 항상 싱싱하고 건강해진다. \* 거름주기: 봄여름에 액체 복합비료(All purpose)를 2달에 한 번씩 준다. 거름의 양은 비료 포장의 권장량에 따른다.

\* 실내 공기를 창문을 열어 가끔 환기를 해 준다.

#### B. 산세베리아 (Sansevieria)

음이온을 다른 식물의 30배 정도나 배출하고 보통 식물과 달리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 침실에 두면 숙면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애용된다.

포름알데하이드나 벤젠 같은 해로운 실내가스 정화 기능이 강하다. 독특한 잎 모양과 색깔 때문에 Mother\_in\_law's\_tongue(시어머니 혀바닥) Snake plant(뱀 식물) 같은 별명도 있다.

\* 위치: 실내에서 밝은 곳에 둔다. 어두운 곳에 두면 잎이 가늘고 키만 커진다. 물 줄 때마다 화분을 1/3 정도씩 돌려주면 잎이 균형있고 고르게 성장한다. 50~85F 정도의 기후에 적합

\* 물주기: 화분 흙 표면에서 1인치 깊이까지 마르면 물을 준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잎의 화분 흙 표면 아랫부분이 썩어 죽게 된다.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물을 적게 준다.

\* 거름주기: 봄과 여름에 한 번씩 선인장 거름(Cactus Fertilizer)을 구입하여 주도록 한다. | 나형철 기자 |



## ■ 교우동정

### 고용흠 안수집사, 고하나 권사 첫 손녀 돌잔치

9월 24일 OC채플 드림목장 고용흠 안수집사, 고하나 권사의 첫 손녀 Ellie의 첫돌 잔치가 열렸다.

여러 명의 손자들만 있다가 손녀를 보게 돼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인지 아기 돌잔치 치고는 많은 5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축하를 했다. 꼬마 손님들이 많아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즐거움을 더했다.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모든 하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Ellie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도록 기원하였다.

| 나형철 기자 |



### 가족같은 끈끈함, 한주도 못만나면 섭섭

밸리 12목장 장기연 장로님과 장혜덕 권사님께서 목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12목장은 16명의 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장 구성원 모두가 가족같은 끈끈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주도 빠지지 않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목장이다.

장소가 여의치 않을 때는 목자이신 장기연 장로님택으로 자연스럽게 물려가도 언제든지 두 팔 들어 환영하시며 각 종류의 과일과 간식거리를 푸짐하게 차려내시는 후덕함에 목장에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는 목원은 없는 목장이라고 자랑한다. | 오희경 기자 |

■ 음악 산책/ 라벨

‘왼 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오른팔을 잃는다. 목숨을 보전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피아니스트에게 한쪽 팔이 없는 현실은 가혹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을 극복하고 여러 작곡가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작품을 써줄 것을 의뢰하며, 피아노 연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 프랑스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모리스 라벨(Maurice Joseph Ravel, 1875~1937)도 의뢰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다. 라벨 역시 같은 전쟁에서 다리 부상을 입고 제대하며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다. 작품을 위촉받을 당시 최고의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그는 의뢰를 받아들였고, 「왼 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Piano Concerto No.2 for the Left Hand in D Major)」을 완성했다.

이 곡은 피아노 건반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며 현란한 기교로 연주된다. 눈을 감고 들으면 한 손으로



만 연주하는 곡이라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라벨은 왼손으로의 완벽한 연주를 지시하며 전체 연주 시간의 1/3 이상을 카덴차(연주자의 기교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주 부분)로 배치했다. 오케스트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 만의 연주로 당당히 관객을 납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완성된 작품을 처음 받아든 비트겐슈타인은 너무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요구했지만 라벨은 단칼에 거절했다. 라벨은 한 팔을 잃은 피아니스트의 불굴의 의지가 쉽고 가벼운 작품으로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두 손을 위해 작곡된 피아노 작품보다 빈약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라는 주석을 남기며 모든 역량을 작품에 쏟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연습과 연구 끝에 라벨의 진심을 이해했고, 원곡 그대로를 들고 초연 무대에 올라 관객의 격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유로 스스로를 한계에 가둘 때, 말씀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다. 때로 이해하기 힘들고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 앞에 서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 황성남 기자 |



■ 포토에세이/ 벨리 20목장 캠핑

'비치 캠핑, 환상적 선셋'

무더위가 한참 절정이었던 지난 노동절 연휴 주일 예배 후에, 벨리 20목장은 El Capitan State Beach Campground로 캠핑을 다녀왔다.

바다가 마주보이는 숲속 같은 캠핑장에서 맛있고 풍성한 음식과 편안한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불명의 시간까지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다.

바닷가에서 바라본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작은 돌고래 무리의 귀여운 향연까지 덤으로 볼 수 있었던, 오래 기억하고픈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었다.

| 이현숙 피택권사 |

